

“광주시 신종 코로나 방역 모범적”...일본 대신 직접 대응한다

일본, 직접대응권한 시에 이관...이용섭 시장 재난대책본부장 맡아 역학조사 대응팀 구성·출장 등 행사 자제...감염 확산 차단에 총력

광주시가 정부를 대신해 최일선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를 직접 막아내고 있다. 정부에서 파견한 질병관리본부 즉각 대응팀이 “광주시의 방역대책이 매우 모범적이고 안정적”이라며 광주시로 직접 대응 권한을 넘겼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광주시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맡은 이용섭 광주시장은 9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와 접촉한 환자들이 격리돼 있는 광주21세기병원을 직접 방문해 상태를 점검하고 의료진과 지원 공직자들을 격려했다. 광주21세기병원에는 국방부 지원으로 군의관 2명과 간호사 10명이 투입돼 확진자와 접촉한 병원내 환자의 치료를 돕고 있다.

병원측은 “광주시와의 긴밀한 협조체계가 이뤄지면서 초기의 일부 불편사항은 모두 해소돼 현재 어려움은 없다”고 말했다.

이용섭 시장은 “초기대응을 맡았던 질병관리본부와 지난 7일 철수하고 지금은 광주시재난안전대책본부가 직접 대응을 하고 있다”며 “시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한 일인 만큼 나눔과 연대의 광주정신으로 시민과 함께 위기를 극복해 나가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광주시는 질병관리본부로부터 대응 권한을 이관받음에 따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을 막는 데 모든 행정력을 총 집중하고 있다.

광주시는 추가 확진자 발생에 대비한 ‘역학조사 즉각 대응팀’을 구성하는 한편 접촉자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접촉자·격리자 관리 전담체계를 구축하는 등 밀접관리에 신속히 나서고 있다.

시는 또 저위험군으로 분류된 격리자들이 생활하고 있는 광주소방학교 생활관에 의사 1명과 간호사 5명 등 의료인력을 추가 지원하고 관리 업무를 수행할 인원 13명도 충원했다.

고위험군으로 분류된 시민이 격리된 광주21세기병원에도 관리 인력 6명을 보강했다. 시는 5개 자치구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모든 정보를 공유하고 있으며, 인력 활용 등도 상황에 맞게 시행하기로 하는 등 감염병 확산을 차단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광주시는 또 출장·교육·행사를 최대한 자제토록 하는 내용이 담긴 신종 코

로나를 차단하는 데 모든 힘을 보태고 있다.

본부는 김동찬 의장을 본부장으로 5개 상임위원회 위원장과 김광란·최미정 의원 등으로 구성했으며, 광주시 방역본부의 활동 상황을 공유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해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시의회는 특히 광주시와 시교유정이 행정력을 집중할 수 있도록 2월 임시회 기간 업무 보고를 축소하고, 3월 임시회 기간에 예정된 시정 질의도 연기할 방침이다.

광주시민의 따뜻한 온정을 이어지고 있다. 광주시 안전모니터봉사단은 지난 7일부터 광주소방학교에서 무료급식 봉사활동에 나섰으며, 지역기업과 업체 등에선 격리시설인 광주소방학교와 광주21세기병원에 각종 생필품 등을 전달하고 있다.

특히 광주보훈병원과 우암의료재단은 광주시의 협조요청에 대부분의 의료기관에서 난색을 표명한 것과는 달리, 의사·간호사를 파견하고 상주하도록 해 격리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지고 있다.

이평형 광주시 복지건강국장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직원들과 함께 24시간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이용섭 광주시장이 9일 오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광산구 21세기병원을 방문, 병원 관계자들로 부터 시설 관리 현황을 듣고 있다.

확산 방지를 위한 복부지침을 시행하는 등 내부단속도 강화하고 있다.

시는 중국·태국으로 여행·출장을 다녀오거나 확진자와 접촉한 직원 41명(광주시 1명, 광산구 33명, 남구 6명, 서구 1명)에 대해선 14일간 자가 격리하도록 했으며, 다행히 이들은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

광주시의회도 이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비상대책본부를 설치하는 등 감염

22번 환자 확진 5일 지나도록 무증상

전남도 국내 첫 사례...접촉자도 1명뿐 '무증세 무전파'

전남 첫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로 진단된 국내 22번 환자 A씨(46·나주)가 지난 5일 양성 판정 이후 오한·발열 등 별다른 증세가 없어 주목을 받고 있다. 확진 당시에도 증세가 없는 국내 첫 사례로 보고된 바 있다. 방역당국은 신종 코로나가 증세 발현 이후 감염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어 A씨에 의한 지역 감염 가능성도 남아 격리기간이 끝나면 검사를 거쳐 퇴원도 가능할 전망이다.

전남도 9일 “전남 첫 확진자 A씨가 진단 검사를 받은 지난 5일부터 6일은 물론 이후에도 증세가 없는 것으로, 질병관리본부(질본)는 무증상 양성 판정 첫 사례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무증상 양성 판정으로 접촉자 역시 부인 단 1명뿐이라는 것이 질본의 결론이다. 지난 4일부터 역학조사한 결과 부인(음성)만 접촉자로 판단했다는 것이다.

A씨는 지난 4일 여동생(16번 환자) 확진 판정 후 자가격리 조치됐다. A씨 여동생인 16번 환자가 태국 여행을 마치고 돌아와 확진 판정을 받기 전 한때 호흡곤란 등 응급 상황까지 갔던 점을 고려해도 이

례적이라는 것이 방역당국의 판단이다.

서현미 전남도 역학조사관은 “질본은 현재 무증상일 경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전파력이 사실상 없다는 입장”이라며 “오한·발열 등 관련 증세가 나타나면서 바이러스 감염 우려가 있고 그 이전 소위 ‘무증상 전파’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고 말했다. 이어 “A씨의 경우 현재까지 아무런 증세가 없이 건강한 상태로 14일간의 격리기간이 끝나면, 검사를 거쳐 퇴원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전남도는 일본 방청과 달리 주민 전파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해 A씨가 확진 판정을 받기 전 자주 왕래했던 마트 관계자 등 9명을 ‘준 접촉자’로 정하고, 모니터링을 이어가고 있다. 질본이 정한 모니터링 대상은 아니지만 전남도, 나주시가 이들에게 자가격리를 요청하고, 필요할 경우 관련 보상에 지급할 것이라고 전남도는 설명했다.

한편 전남도는 감염력 전파자 주재로 이날 대책회의를 열고 전남도와 사군이 능동적인 방역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유독 어린이 피해가는 신종코로나

“자각증상 없거나 가볍게 감염”...사스·메르스때도 비슷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이 전 세계로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유독 어린이 확진자가 거의 없다는 공통점이 나타나고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광주 첫 확진자인 40대 여성(42·광주시 광산구)의 자녀 중에서도 딸(20)만 감염됐을 뿐 밀접도가 상대적으로 높을 수 밖에 없는 7세 아들은 감염되지 않았다. 이런 특징은 한때 전 세계를 뒤흔들었던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와 메르스(MERS·중증호흡기증후군)때도 마찬가지였다.

9일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 등에 따르면 국내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25명도 20대에서 70대 사이에만 분포돼 있으며, 현재까지는 어린이가 감염된 사례는 없다. 물론 중국과 싱가포르 등에서 생후 30시간, 6개월 된 아이의 감염 사례 등이 보고되고 있지만, 이는 산모와 신생아의 수직감염 등 극히 이례적인 조건에서 발생한 것이다.

전문가들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환자가 처음으로 발생한 곳이 어린이 주로 방문하는 중국 우한지역 내 시장이라는

점과 어린이들의 면역 체계 특성상 감염되더라도 무증상 상태에서 회복되는 경우가 있다는 의견 등을 내놓고 있다. 바이러스 퇴치에 중요한 신체의 선천적 면역력이 노화로 인해 약화되고, 약해져 질병발병 확률이 높아진다는 논리다.

일부에선 감염증 확산시 부모들을 중심으로 어린이에 대한 예방대책이 최우선적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주장도 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9일부터 지난달 4일까지 중국 광둥성 선전에서 후베이성 우한으로 여행을 다녀온 한 가족 중 10살짜리 어린이만 감염 증상을 보이지 않았다. 이 아이는 선전에서 돌아온 뒤 바이러스성 폐렴 징후를 나타내긴 했지만, 외부로 나타난 증상은 없

었다. 36세에서 66세 사이의 다른 가족은 발열, 인후염, 설사, 폐렴 등 전형적인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상을 보였다.

전염병학자인 레이나 맥클린타이어 호주 뉴사우스웨일스대 교수는 “어린이들은 자각 증상 없이 감염되거나 매우 가볍게 감염될 뿐”이라고 견해를 밝혔다.

이 같은 특징은 사스와 메르스 때도 비슷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 따르면 전 세계 사스 확진 환자 8000여명 중 아동은 135명 뿐이었으며, 800명의 사망자 중 어린이는 1명도 없다. 메르스 사망자 800명 중에서도 어린이는 단 1명도 없다. 말리 페이리스 홍콩대 바이러스학과장은 “어린이도 전염되지만, 상대적으로 덜한 증상을 겪고 급방 회복되는 사례가 많다”는 주장을 내놨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부실채권 못받은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 차용증·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 녹취등 각종채권상담

▶ 절대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등 파악
- 실거주지 파악 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 전국 68개 점포로 전국 가능

▶ 국가신용관리사가 직접관리 ◀
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산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재산이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상담가능)

NAVER 채권추심 회수왕

새한신용정보(주)
010-6833-1600
직통전화 062)513-4306

풍수·사주

수강생 수시모집 및 상담

기운을 바꾸는 풍수~!
주택, 사업장은 물론 산소까지, 있는 그대로의 상태에서 보다 좋은 터전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개강 (6개월 과정)

- 일 시 : 2020. 3. 3(화) 오후7시
- 장 소 : 심미온기풍수지리학회 교육장 (무등로478-1 : 산수오거리 → 무등산방향입구 우측 2층)
- 수강료 : 풍수+사주 15만원(매월)

공개강좌 (무료)

- 일 시 : 2020. 2. 25(화) 오후7시.
- 장 소 : 상동(심미온기풍수지리학회교육장)
- 대 상 : 누구나 (선착순○○명)

컨설팅(전문상담) 분야

- 천기비법 대 공개
- 기감풍수 비법 교육
- 분묘, 이장, 납골당 및 수목장 수액과 중화
- 음택, 양택의 풍수 감정 및 비보
- 사업(장사) 부진의 풍수적 진단
- 사주 교육 및 감정(사주, 궁합, 택일 등)
- 작명(신생아, 개명, 상호 등)

심미온기풍수지리학회
010-3146-6370 / 010-2246-1508

2020 漢字·漢文指導師資格
※教育部 國家公認 研修生募集

구분	광주여자대학교(30기)	광주교육대학교(21기)
모집/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요일 오전반 2020. 3. 6(금) 09:10 (중급반) • 토요일 오전반 2020. 3. 7(토) 09:10 (고급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요일 오후반 2020. 3. 6(금) 14:10 (중급반) • 토요일 오후반 2020. 3. 7(토) 14:10 (고급반)
모집기간	2020. 1. 23(목) ~ 3. 7(토)	
수업기간	2020. 3. 6(금) ~ 2020. 8. 8(토) (6개월 24주 96시간)	
수업시간	• 오전반 09:10 ~ 13:00 • 오후반 14:10 ~ 18:00	
수료후특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2단계연수과정 이수시 총장 명의 수료증 수여 • 국가공인 기관 한자교육 진흥회 한문지도사 자격 취득 기회 부여 • 각 한문학원 강사 추천 및 학원개설 가능 • 각급 학교 (병과 후 교육) 강사추천 • 연수과정 중 국가공인 한자급수 (3급 ~ 사법) 취득기회 부여 	
수강료	₩ 360,000(예금주 : 광주여대) • 광주은행 : 148-107-307803	₩ 360,000(예금주 : 광주교대) • 국민은행 : 773901-01-476736
원서교부 및 접수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의 : 062)950-3582-4 • 지도교수(선병공) : 010-3614-4160 <p>광주여자대학교 평생교육원 HANGUL WOMEN'S UNIVERSITY http://always.kwu.ac.kr</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의 : 062)520-4243 • 지도교수(선병공) : 010-3614-4160 <p>광주교육대학교 평생교육원 KWANGJU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http://www.gnue.ac.kr/</p>

지난 20년간 14,000여명이 수강한 명강의

불황기에 뜨는 부동산 경매와 재테크 강의

전임강사: 정영수 경영학박사(부동산 전공)

전남대경영연구소 전임연구원
평생교육공로 : “교육부장관상” 수상
MBC-TV방송국 경제특강
공무원연수원 등 500회 이상 초청특강

특전
자격취득 희망시 국가공인 빌딩경영관리사, 분양상담사, 부동산관리 분석사 자격취득토록 책임지도하며 수료 후 모의체 결성하여 지도함

강의기간 : 2020년 3월~6월(15주)
정원 : 선착순 50명 마감

조선대 평생교육원

- 부동산컨설팅과 재테크 매주(수) 19시~21시
- 접수처 : 062)230-7700-2

광주교육대 평생교육원(무료주자)

- 부동산 실전경매 매주(목) 19시~21시
- 접수처 : 062)520-4243

부동산강의 및 부동산경매 관련 상담
010-5613-1808 정영수 박사